경북도, 지역소멸극복 위한 '경북형 6대 프로젝트' 박차

'지방시대 선포식' 발맞춰 발표
'경북도지방시대委' 구성 근거 마련
K-U시티·K-아이비 등으로 구성

윤석열 대통령, 박형준 부산시장 등 참석자들이 14일 부산시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경북도가 '경북형 6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지난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의 '지방시대 선포식'에 발맞춰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발표다. 앞서 경북도와 의회는 전국 최초로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도는 이번 조례로 '경상북도지방시대위원회' 구성 근거가 마련됐고 다른 시도의 지방시대위원회와는 달리 도뿐 아니라 시군도 참여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특히 지난 1월 1일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 균형발전, 청년·인구·외국인·대학정책 등을 종합하는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 데 이어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에서 대학을 나와 지역기업에 취업하고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경상북도, K-U시티 프로젝트'를 수립했다.

도는 이 프로젝트로 14일 국무조정실 주관 청년의 날 행사에서 '2023년도 청년정책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지역 소멸 극복을 위한 경북형 6대 프로젝트'도 발표했다.이 프로젝트는 ▲지방시대로 대전환(K-U시티) ▲아이디어 산업 주도 대학으로 대전환(K-아이비) ▲글로벌 개방사회 대전환(K-신라방) ▲외국인 유학생 1만명 유치(K-드림) ▲인구개념 대전환(K-라이프) ▲청년 중심 사회로 대전환(K-청년 하이웨이) 등으로 돼 있다.

'지방시대로 대전환 K-U시티' 프로젝트는 기업과 지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을 유치하고 대학-전문대-고교의 일체형 인력양성과 입지·산업·교육·의료 분야의 규제혁신을 추진하며, 배움터-일터-삶터가 어우러지는 캠퍼스형 창의 주거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줘야 그에 상응하는 능력도 발휘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도 현장 중심의 플랫폼 정부로 바꿔야 한다"며 "지역 실정에 맞도록 지방정부와 대학, 기업이 공동 기획해 지방에서 우선 투자해 실행한 후 중앙정부에서 역매칭하는 방식으로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장영우 기자 ycyw57@metroseoul.co.kr

울산시, 시민 재산·생명 보호 위해 재해예방사업 사업비 824억 확보

행안부 내년도 신규사업 선정
평균 사업비比 4배 이상 늘어

울산시가 '2024년 재해예방사업' 등과 관련해 총 3건의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내년도 신규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총 824억 원을 확보했다.

선정 사업을 보면, ▲서생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총 사업비 420억 원, 국비 210억 원) ▲무동 재해위험개선사업 (총 사업비 210억 원, 국비 105억 원) ▲점골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총 사업비 194억 원, 국비 97억 원) 등이다. 이는 최근 5년간 울산시 재해예방사업 평균 사업비(206억 원) 대비, 4배 이상 늘어난 규모이다.

앞서 울산시는 서생지구와 무동지구를 올해 3월 '2024년 재해예방 신규사업'으로, 점골지구를 '2024년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사업'으로 각각 행정안전부로 신청했었다.

이 가운데 서생지구는 집중호우 때마다 하천 범람으로 지난 10년간 6번이나 침수된 지역이고, 무동지구는 태화강 수위 상승에 따른 배수 불량으로 침수가 빈번히 발생해 지역주민의 재산 피해 뿐 아니라 생활 안전위험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사업 시행은 울주군이 2024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해 2028년(서생지구), 2027년(무동지구) 2027년(점골지구)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재해예방 사업에 최우선을 두고 노력한 결과, 예년에 비해 평균 4배나 많은 사업비를 확보했다"며 "사업이 마무리되면 근본적이고 항구적 방재대책과 종합적인 정비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부산시가 강원도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등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부산시

부산시-강원도, 홍보유치 상생 협약

세계박람회·세계산림엑스포

부산시는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강원도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등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15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부산시와 강원도가 2030부산세계박람회 성공적 유치를 위해 공감하고 앞으로의 홍보 활동에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또 오는 9월 강원도에서 열리는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한 관람 홍보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이 체결되면, 두 기관은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홍보 협조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관람 홍보 협조 ▲양 지자체 간 협력 증진방안 논의 등에 상호 협력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강원도의 대내외적인 홍보역량을 집중하여 엑스포 유치에 대한 범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경제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세계박람회를 2030년 부산으로 유치하면 부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의 경제체질을 새롭게 바꾸는 성장동력이 될 것"고 말했다.

/부산=김영찬 기자 metrobusan3@

구미시,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2개교 선정

구미초·도송중에 522억 투입

구미시는 지난 9월 14일 교육부가 주관한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지역 2개교(구미초, 도송중)가 최종 선정됐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학교 유휴공간에 교육·돌봄시설, 문화·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등 학교와 지역에서 필요한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해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교육·돌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공모 선정으로 시는 총 161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구미초·도송중 2개교에 총 522억 원(국비 161, 시비·기타 361)을 투입한다. 실무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구미초와 도송중 부지 내 교육·돌봄시설, 체육관, 다목적실 등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해 기초생활인프라를 확충해 늘어나는 교육 · 돌봄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며, 지하주차장 건립으로 주차난을 해소할 예정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시와 교육청 간 긴밀한 상호협력으로 지역주민과 학생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구미(경북)=류희철 기자 rhc1369@

광주 서구시설관리公, 자체평가서 낙제점

행안부 경영평 이어… 경영부진 문제

광주 서구 시설관리공단이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에 이어 서구 자체 성과 평가에서도 낙제점을 받으면서 경영 부진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광주 서구는 서구 시설관리공단이 이사장 경영성과 계약 이행 실적 평가에서 최하위 '마'등급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서구는 공단이 운영을 시작한 지난해 1월부터 1년간의 시설공단의 경영실적을 평가했다. 서구는 6가지 평가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하점을 줬다. 지표는 책임경영을 위한 경영층의 노력, 차질 없는 공공서비스 제공, 고객 만족증진, 공단운영 활성화, 경영수지 개선, 정책 준수다.

시설공단은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미흡, 노사 갈등 문제, 낮은 고객 만족도 등 전체 항목에 대해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 등급을 받은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은 내년 연봉이 5~10% 삭감된다.

앞서 서구시설관리공단은 최근 행정안전부 경영실적 평가에서도 낙제점을 맞았다.

/광주=양수녕 기자 ysn6313@

지역 이모저모

순천시

추석 명절 대비 물가안정 관리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오는 27일까지 추석 명절 대비 물가안정 관리 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순천시는 추석 성수품과 식재료 물가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4개반 29명의 물가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추석 명절 성수물품 수급 및 물가합동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추석 명절 중점관리 품목인 20개 품목에 대해서는 물가모니터 요원 4명이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을 직접 방문해 가격 변동 추이, 인상업소 지도 등 집중 관리한다.

/순천(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기장군

야구체험관·실내연습장 착공

기장군은 기장야구테마파크 내 조성하고 있는 '야구체험관 및 실내야구연습장' 신축공사가 9월 착공을 시작으로 올해 연말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들어간다.

야구체험관 및 실내야구연습장은 연면적 6859.78㎡,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 약 200억원이 투입돼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시설로 투구연습장, 휘트니스센터, 물리치료실, 체력측정실 등 훈련시설과 감독실, 코치실, 회의실, 전략분석실, 키즈야구단실 등 코치진과 선수용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부산=이도식 기자

전남도

의병 관련 유물 공개매입 추진

전라남도는 오는 10월 6일까지 의병 관련 유물 공개 매입을 추진한다.

매입 대상은 을묘왜변(1555년)과, 임진왜란(1592년)부터 3·1운동(1919년) 이전까지 의병 관련 유물이다. 이번 공개 매입에서는 의병 활동(인물)과 관련된 삽화, 사진, 초상화, 무기류, 민속품 등을 우선 선별한다.

전남도는 의병 후손의 소장자료, 유품, 생활용품 등도 기증받고 있다. 유물 기증을 바라면 의병박물관건립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증자에게는 기증서를 발급하고, 향후 박물관 기증유물 명패 게시, 특별전, 공식행사 개최 시 초청과 입장료 면제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남=양수녕 기자

영양군

도농상생 농특산물 한마당 행사

'2023 영양고추 H.O.T 페스티벌'이 서울광장에서 '영양고추는 언제나 옳다!'라는 슬로건으로 18일부터 3일간 15번째 도농상생 농특산물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농특산물 통합마케팅을 중점으로 불필요한 무대행사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전시체험 공간 운영 등 선택과 집중의 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우수 농특산물 홍보 사절단인 영양고추아가씨들이 현장을 누비며 판매활동에 앞장선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